

제14권 24호

2024. 12. 9~2024. 12. 22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다중위기의 시대, 회색 코볼소가 온다                           |
| 이슈분석    | 부동산PF 부실 현황과 저축은행업의 미래                         |
| 금융경영브리프 | 가속화되는 일본 메가뱅크의 인도진출<br>日 은행, 자산관리 상담형 특화 점포 확대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br>해외 금융시장                             |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        |               |
|--------|---------------|
| 선임연구위원 | 장보형(jangbo)   |
| 연구위원   | 김영준(kimekono) |
| 연구원    | 송형은(hesong)   |

#### 논단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 김성택

#### 이슈분석

|       |                 |
|-------|-----------------|
| 수석연구원 | 최희재(heejaechoi) |
|-------|-----------------|

#### 금융경영브리프

|       |                 |
|-------|-----------------|
| 수석연구원 | 정윤영(yunyeong.j) |
| 연구원   | 송형은(hesong)     |

#### 금융지표

|     |                |
|-----|----------------|
| 연구원 | 이예린(yerin.lee) |
|-----|----------------|

제14권 24호

2024. 12. 9~2024. 12. 22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다중위기의 시대, 회색 코볼소가 온다
- 04 **이슈분석** 부동산PF 부실 현황과 저축은행업의 미래
- 08 **금융경영브리프** 가속화되는 일본 메가뱅크의 인도진출  
日 은행, 자산관리 상담형 특화 점포 확대
- 12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다중위기의 시대, 회색 코뿔소가 온다\*

김 성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

트럼프 2.0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다. 충성파를 중용하면서도 월가 출신, 친노동계 인사, 테크노 자유주의자들을 혼합하여 성장 지속과 개혁 과제들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시장이 내년 전망을 비교적 낙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 시스템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회색 코뿔소(Grey Rhino) 유형의 위기가 동시 발생하는 다중위기(polycrisis)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 2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었다. 1기 내각이 트럼프주의자와 전통적인 공화당원의 연합이었다면 2기는 외연이 더 넓어졌다. 외교/안보와 이민, 법무 등 내치 담당자들은 충성파 트럼프주의자들로 채워졌다. 반면,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는 강경한 관세론자를 내정했지만, 경제팀 전반적으로는 감세, 규제완화, 재정적자 축소 등 전통적인 공화당의 어젠다를 중시하는 인사들이 주축이다. 공화당 노선과는 거리가 먼 친노동계 성향의 인사를 노동부 장관에 발탁함으로써 다인종 노동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연방정부 개혁을 주도할 인사들은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노 자유주의자들을 선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의 여파로 아마존, 애플, 메타, 알파벳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민주당과의 밀월을 끝내고 트럼프 지지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내각 인선은 향후 마가(MAGA) 어젠다를 추진하더라도 경제성장, 물가안정, 증시 부양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소로스펀드 이력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령탑에 스킷 베센트를 지명한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반면, 외교/안보, 이민, 법무, 교육, 연방정부 개혁, 규제 등의 어젠다는 기존의 충성파나 새로운 영입 세력들을 통해 다소 충격을 주더라도 안정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미국을 다소 낙관하는 분위기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부과를 협박해도 대부분 협상용일 것이라는 판단 속에 대중관세 인상폭은 10% 내외가 될 것이고 보편관세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 여전

성장과 개혁 과제의  
병행 추진 도모

## 시장은 트럼프 2.0을 다소 낙관

또한, 관세 도입 시에도 규제완화나 감세, 암호화폐 붐이 경기충격을 상회할 것으로 평가한다.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이 있지만 연준의 급속한 피벗(금리 동결 혹은 인상) 가능성은 낮게 본다. 과연 트럼프는 시장의 기대대로 성장과 마가 어젠다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 트럼프 2.0에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 위험을 직시할 필요

###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정책 불확실성에 유의

첫째,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관세인상은 불법이민, 마약문제, 동맹국 방위비 분담 등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인데 과연 그것을 중국에만 적용하는 것에 그칠까? 트럼프에게 호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둘째, **정책상의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 감세 등은 단기간에 윤곽을 갖출 수 있겠으나 추방, 규제완화, 연방정부 개혁 등 다른 어젠다들은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시장이나 실물경제는 불확실성과 상극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감세, 규제완화 등의 기대감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 탈규제와 암호화폐 진흥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

셋째, 규제완화나 암호화폐 붐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다. 머스크 등 테크노 자유주의자들은 일체의 규제로부터 해방된 기술고도사회를 희망한다. 빅테크 기업들만 아니라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도 개혁 대상이 될 것이다. 규제 없는 빅테크나 시장은 언제나 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 진흥론도 위험하다. 비트코인을 정부(연준)가 매입하여 암호화폐 준비금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공론화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심하고 유동성 위험도 높다. 사이버 보안 위험에도 취약하다. 루비니 교수는 암호화폐를 모든 거품의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했다. 거품이 커질수록 붕괴의 충격은 더 커진다.

### 정정불안 심화 및 보건위기 재연 가능성

넷째,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개혁 등 대내적 어젠다 추진에 따른 충격을 **현 시점에서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연방정부 개혁은 초강경 극우 보수의 논리로 점철된 <프로젝트 2025>의 행정국가 해체론, 대통령 권한 강화론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연방공무원 해고, 정부기관 축소 혹은 폐지, 대통령의 예산 압류권 부활 등은 미국 사회를 **정정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다. 다섯째, **보건위기의 재연 가능성**이다. 트럼프 2.0이 화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해도 단기간에 온난화가 재앙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중보건은 다르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예방접종이나

백신을 불신한다.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러한 소신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제2의 섯다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제로섬 논리가 국제관계를 더욱 지배**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내외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아직 컨센서스를 형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등장 ‘이전’이 신자유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기반한 질서였다면 ‘이후’는 아직 진행형이다. 중국 억제, 공정무역, 제조업 재건, 빈부격차 완화, 국익 최우선의 외교/안보 등의 핵심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나, 미국 내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뉴딜이나 신자유주의 질서와 같이 규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까지 진전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구심력은 약화되고 원심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관세, 보복관세의 악순환으로 인해 사실상 공멸하고 말았던 1930년대와 같은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일각에서 플라자 합의와 같은 주요국의 환율 조정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관계의  
제로섬 논리 득세 속  
지정학적 불안 고조

마지막으로,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각국의 정책들로 인해 다자주의와 룰에 기반한 국제안보 및 협력 체제는 약화될 것이며 도처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공급망 분단이나 블록화도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트럼프의 미국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는 성장과 개혁(마가 어젠다)간의 절묘한 균형에 성공하여 미국의 경기확장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과열, 물가 재상승, 금융시스템 균열, 미국내 정정불안, 지정학적 충돌, 팬데믹 재발 등의 위기가 순차 혹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미리 감지되지만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대응하기 어려운 **회색 코뿔소(Grey Rhino)**나 **화이트 스완(White Swan)** 유형의 위기가 복수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회색 코뿔소 등의  
글로벌 다중위기 발생  
가능성도 잠재

트럼프 2.0은 <프로젝트 2025>의 염원대로 ‘공화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몰락을 자극하는 촉매가 될 것인가? 트럼프는 제2의 링컨이나 레이건을 꿈꾸겠지만, 체제개혁 및 개방이 민족주의를 촉발하여 제국을 몰락시킨 고르바초프를 답습할 수도 있지 않을까? 

## 부동산PF 부실 현황과 저축은행업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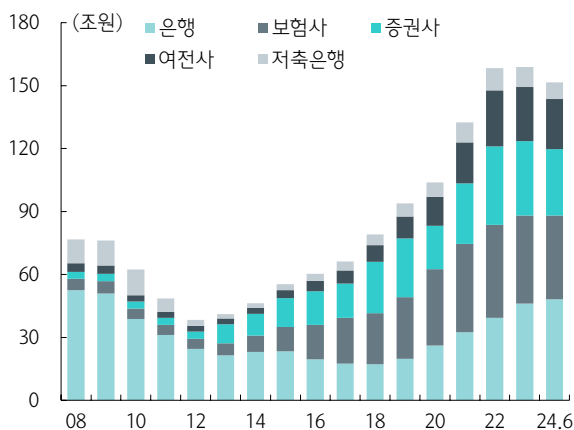
최 희 재 수석연구원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제2금융권 중심의 부동산PF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업권 특성상 타업권과 비교하여 고위험PF인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이 높아 부동산PF 부실 위험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업은 당분간 수익성 부진 및 건전성 부담이 지속되고 성장성이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저축은행은 업황 악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압박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혁신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 ■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제2금융권 중심의 부동산PF 부실 위험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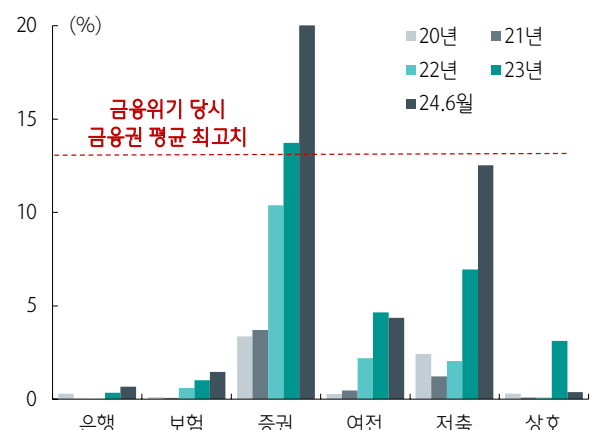
- '18년부터 제2금융권 중심의 PF 대출이 급증하였으나, 최근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PF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일부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 확대
  - PF 대출 잔액(조원): 79.1('18년) → 130.9('20년) → 158.3('22년) → 151.5('24.6월)
  - '18년부터 약 5년간 저금리, 부동산 시장 호황에 이어 PF 상품영역이 초기 대출, 비아파트·비수도권 등으로 확대되고 자금조달 범위도 확대되며 PF 대출이 급증
-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 은행권 대비 부실 위험이 높고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PF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
  - 금융위기 당시 대비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
- 한편, '22년 이후 부동산PF 시장 위축으로 아파트 등 우량 PF 자산 중심으로만 시장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은행권의 PF 대출 비중은 확대

■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주 : 증권사는 직접대출과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을 합산  
 자료 : 한국은행('08~'19), 금융위원회('20~'24)

■ 업권별 부동산PF 연체율 추이



자료 :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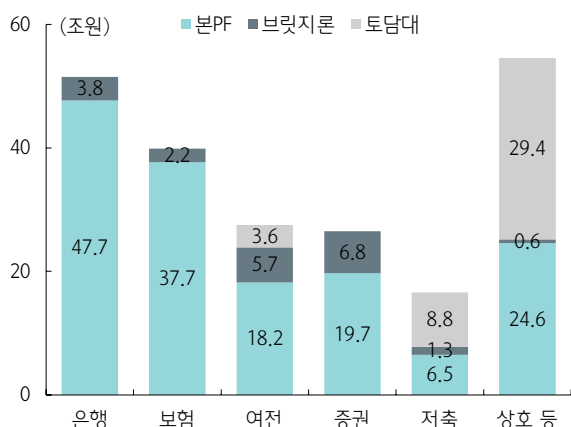
## ■ 제2금융권은 은행권과 비교하여 고위험PF인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을 다량 보유

- '24.6월 기준 업권별 토지담보대출, 새마을금고 익스포저 등을 포함한 부동산PF의 총 익스포저는 217조원이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위험PF 대출 비중이 높음
-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고위험PF인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고위험PF 비중이 60-70%를 차지
  - 브릿지론·토담대 비중(%): 상호(76), 저축(61), 증권(40), 여전(34), 은행(7), 보험사(6)

## ■ 특히 저축은행은 업권 특성상 타업권 대비 부동산PF 부실 위험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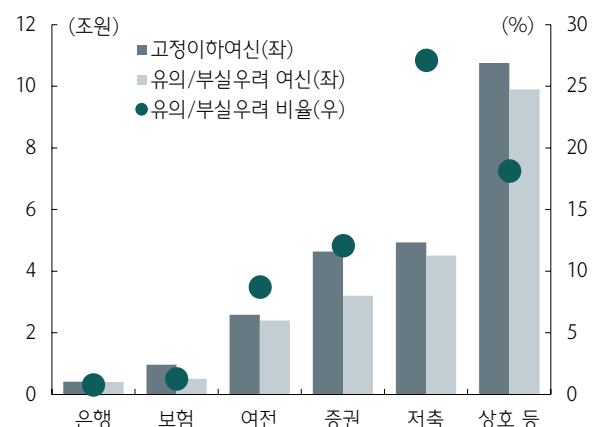
-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타업권 대비 적으나 소규모,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 중소 건설사 참여 사업장 비중이 높아 타업권 대비 PF 부실 위험이 높음
  - 사업장별 평균 PF 취급 규모(억원): 은행(270), 보험(325), 여전(110), 증권(61), 저축은행(25)
- '24.6월 정부의 PF 사업장 평가 결과 저축은행은 부실위험이 높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비율이 27%로 타업권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업권별 유의/부실우려 PF 여신 비중(%): 저축은행(27), 상호금융(18), 증권(12), 은행(1)
- 최근 부실사업장 매각률 하락과 비교적 우량한 사업장의 만기연장 등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및 본PF 전환 지연 등이 저축은행 PF의 주요 리스크 요인
-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비아파트 대출 및 투기·무등급 시공사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정상화까지 타업권 대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
  - 저축은행은 PF 기초자산이 타업권 대비 열악해 부동산 경기 위축 시 선제적인 타격을 받고 회복도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규모



주 : '24.6월 기준, 상호 등은 새마을금고를 포함  
자료 : 금융위원회

■ 업권별 유의/부실우려 PF 여신 규모



주 : '24.6월 기준,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저(217조원) 중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34조원) 대상으로 평가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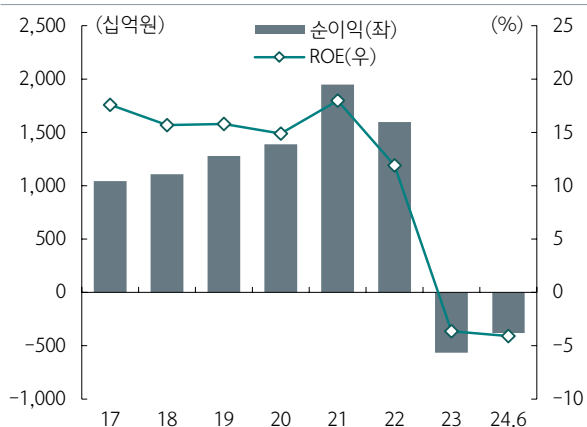
## ■ 부동산PF 부실 등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되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재발 가능성 확대

-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실적 악화가 가속화되며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위험이 확대되는 등 '11년 저축은행 사태 재발 우려 부각
  - 저축은행 연체율 추이: 2.5%(’21년) → 3.4%(’22년) → 6.6%(’23년) → 8.4%(’24.6월)
  - '24.6월 기준 저축은행 79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개 저축은행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초과한 저축은행도 63개에 달함
- 다만, 업권 전체로는 부동산PF 관련 신규 취급 위축 및 부실 정리 노력 등으로 위험가중자산 감소 효과가 자기자본 감소 효과를 상회하며 BIS비율이 개선
  - 업권 전체 BIS비율 추이(%): 13.15(’22년)→ 14.30(’23년)→ 15.04(’24.6월)
- 반면, PF 부실에 따른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PF 비중이 높은 일부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위험수준에 도달하며 업권 전반의 건전성 부담 증가
  - 저축은행 PF 연체율(%): 1.2(’21년) → 2.1(’22년) → 7.0%(’23년) → 12.5%(’24.3월)

## ■ 저축은행은 당분간 수익성 부진 및 건전성 부담이 지속되어 성장성이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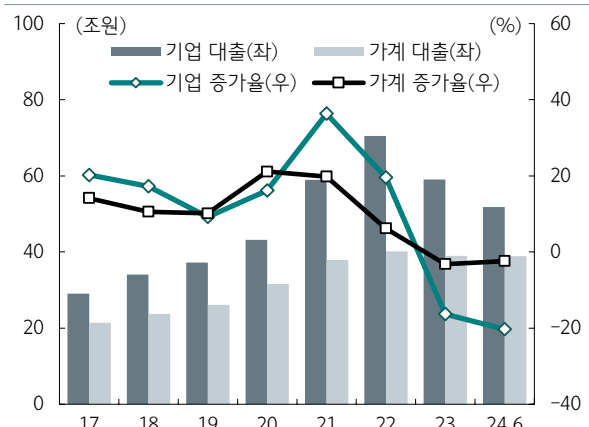
- 저축은행의 PF부실 정리가 '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부진도 '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PF사업장 재평가에 따른 부실여신 증가 등 PF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중채무자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규제로 대손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금융당국의 PF 연착륙 지원, 경영실태평가 등 건전성 관리 압박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부담이 당분간 이어지고 대출 성장도 제한적일 전망
  - '24.3월 금융감독원의 부실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저축은행 3개사의 경영평가 4등급이 확정되었으며, PF건전성 분류가 마무리되면 대상이 확대될 예상

■ 저축은행 순이익 및 ROE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 차주별 대출 잔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현재 부동산PF는 금융당국에서 주목하고 대비한 사안으로 부동산PF 관련 시장실패가 정책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부담이 과제로 상존

- 이번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은 과거와는 달리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금융회사가 만기도래에 따라 순차적 평가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
  - PF규제는 과거 구조조정을 통해 고도화되어 금번 대책은 업권별 규제 완화에 집중
- 단, PF 정리·손실은 경공매 진행과 ‘유의 및 부실우려’ 재분류 등에 따라 추가 손실 발생이 가능함에 따라 PF 부실 정리는 '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
- 10년마다 반복되는 ‘저축은행 10년 부실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할 필요

■ 향후 저축은행업은 회복 및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혁신 등의 노력이 필요

- 향후 저축은행은 PF 정상화 및 구조조정 진행 속도에 따라 회복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나, 적극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회복 및 성장이 가능할 것
- (리테일 강화) PF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정책성 대출 등 중저신용자 대상 리테일 역량을 강화하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요구
  - 기업대출보다 리테일 기반 중심의 저축은행이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이 모두 높은 편
- (관계형금융) 저축은행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가운데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관계형금융 강화가 필요
  - 자체적 중저신용자 CSS 개발 등을 통해 대출심사 프로세스를 정교화할 필요
- (신사업·인재 발굴) 기존 영업범위를 넘어선 신사업 발굴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대면/비대면 영업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확보 

■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비교 (글로벌 금융위기 vs. 최근 부동산PF 위기)

| 저축은행 사태('11년)                                                                                                                                                                                                                                                                                                                                                         | 최근 부동산PF 위기('23년 ~ 현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성평가를 통한 조사 기준 등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li> <li>→ 단발성 사업성 평가를 진행</li> </ul> </li> <li>- ‘PF 리스크 관련 규제 도입’을 통해 건전성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 취급 한도, 운용 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li> <li>→ PF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도입</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기준을 통한 신속한 부실 정리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별 부실 수준을 우선적으로 파악</li> <li>→ 만기연장, 사업성평가, 경공매 처리를 단계적으로 실행</li> </ul> </li> <li>- ‘사후관리 기준 강화’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부실의 주요 요인인 브릿지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li> <li>→ 총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추가 손실 우려를 방지</li> </ul> </li> </ul> |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가속화되는 일본 메가뱅크의 인도진출

정윤영 수석연구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시장에 대한 일본 메가뱅크의 진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 메가뱅크들은 인도 진출 자국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인도 소비자금융 시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지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인수 방식으로 인도 내 입지 강화와 수익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국내 은행도 인도시장 진출 속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업 확장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 日 메가뱅크,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금융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인도시장에 진출 박차<sup>[1]</sup>

- 인도는 타 지역 대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시에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 모바일 금융시장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어 글로벌 은행들의 진출이 활발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5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6.5%로 전세계 (3.2%) 및 신흥개도국(4.2%) 성장률 대비 높은 수준('24.10월 기준)
  - '23년 기준 인도의 모바일폰 보급률은 79%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증가 추이(sataista)
- 글로벌 은행들의 인도 내 금융서비스 제공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메가뱅크들도 비즈니스 다변화 차원에서 인도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
  - 인도 내 금융니즈가 큰 소매금융 및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움직임

### ■ 日 메가뱅크의 인도시장 진출 전략에는 금융그룹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현지 금융회사와의 파트너십, 전략적 투자 및 인수를 통한 소비자금융 진출을 모색

- (MUFG) 인도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DMI Finance<sup>[2]</sup>에 투자확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인도시장 내 입지 확대 및 사업 확장을 도모
  - MUFG는 디지털 기술에 강점이 있는 비은행 기업인 DMI Finance에 338억엔('23년)을 투자한데 이어 490억엔을 추가 출자('24.8월)하며 플랫폼 금융 사업을 강화
- (SMFG) 인도 내 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에게 금융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Fullerton India Credit의 지분을 모두 인수('24.3월)하면서 자회사인 SMFG India Credit을 출범시켰으며 리테일 시장으로도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

[1] "Japanese mega-banks grow in India", IFR, 2024.11

[2] DMI Finance는 누적 1,520만 명의 손님을 자랑하는 인도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업체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POS 대출 등의 소비자금융 사업을 수행

- SMFG는 '21년 12월 Fullerton India Credit을 인수하였으며 이후 지난 2년간 도시 및 준농촌 지역에 300여개의 지점을 추가 설립하며 인도 내 사업을 확대
- (Mizuho)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하고, 인도 재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장 내 입지 강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 인도의 신용대출 전문회사인 Kissetu Saison Finance 지분을 인수(15%, \$1.45억, '24.2월)하였으며, 인도의 기업 임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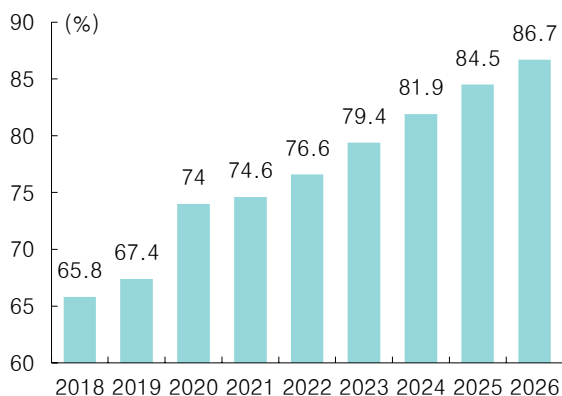
#### ■ 또한 인도시장 내 지속적인 대출 확대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익증진을 실현

- (MUFG) '24년 3월 기준 인도시장 대출규모는 1.4조 엔으로 인도네시아(1.1조 엔), 필리핀(0.3조 엔) 등 타 동남아 진출 국가 대비 대출자산 규모가 큰 편
  - MUFG ASEAN 포트폴리오 내 인도시장 대출규모 순위: 6위('20년) → 3위('23년)
- (SMFG) 3,782억 엔('20년) 수준이었던 대출규모를 8,770억 엔('23년)까지 확대하며 인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수익 또한 증가 추이

#### ■ 국내 은행들도 인도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등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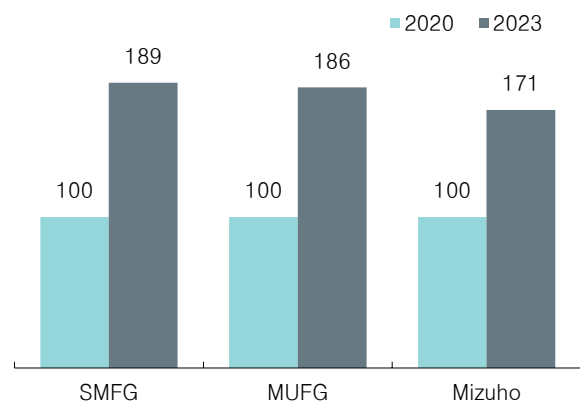
- 최근 들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인도 진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지 지점을 증설하는 등 인도시장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중
- 그러나 향후 인도 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시장 공략 방안을 고심할 필요 📌

#### ■ 인도 모바일폰 보급률 추이



주 : 2023~2026년은 추정치  
자료 : Statista

#### ■ 日 메가뱅크들의 인도시장 수익 추이



주 : 2020년 회계연도 실적을 100으로 한 상대지수  
자료 : 각사 홈페이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日 은행, 자산관리 상담형 특화 점포 확대

송형은 연구원

일본 은행들은 지점 축소 트렌드와는 별개로 타 채널로는 대체하기 힘든 대면 채널만의 특정 니즈에 주목하여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신형 특화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즈호 은행은 자산관리 상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SMBC와 리소나 은행도 접근성이 좋은 대형 상업시설에 자산상담형 특화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은행들도 대면채널만의 고유한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는 형태의 특화점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 일본은행, 손님들이 기대하는 대면채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형 특화 점포 확대

- 디지털 채널이 은행업무의 많은 부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손님들도 일상적인 업무는 편리한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는 등 손님의 채널 선호도에도 변화가 생김
- 다만, 여전히 자산관리 등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때는 전문가와 대면으로 상의하고 싶어 하는 등 대면 채널에 기대하는 특정한 니즈가 존재
- 일본 은행들은 이러한 대면채널 고유의 니즈에 주목하여 자산운용관련 상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 점포를 개설·확대해 나가고 있음

### ■ 미즈호 은행은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 중심의 신형 점포 출점 및 확대 예정<sup>[1]</sup>

- 미즈호는 개인손님 대상으로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형 점포 ‘미즈호 아틀리에’를 출점(’25.3월)할 예정이며 향후 5년동안 70개점으로 확대할 계획<sup>[2]</sup>
- 전문적인 자산관리 상담이 가능한 라이프플랜 어드바이저를 미즈호 아틀리에에 배치하여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즈호의 차별화 전략
  - 라이프플랜 어드바이저의 약 95%가 재무설계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금, 부동산, 보험, 세금 등 여러 분야에서 맞춤형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
- 또한, 대면채널을 통한 상담 니즈에 집중하기 위해 일상 업무는 디지털로 대체
  - 대여금고 등 기존 점포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없애고, 다양한 셀프 단말기를 구비해 계좌 개설 등 단순 업무를 원격이나 디지털로 대체하여 점포의 효율성 제고

[1] “みずほ銀行が個人向け新型店舗を開設へ、今後5年で70カ店に”, Kanzai, 2024.11.15

[2] “みずほ銀行、新型店舗「みずほのアトリエ」の開業について発表”, Nikkei, 2024.11.7

■ SMBC와 리소나 은행도 소형화한 상담형 점포를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으로 이전하고 점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sup>3)</sup>

- SMBC와 리소나 은행은 역세권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던 기존 점포를 소형화하는 대신 대형 쇼핑몰이나 지하철 역 내 상업공간으로 이전하여 손님의 접근성 제고
  - 자산상담을 원하는 손님의 경우 대부분 가족단위로 방문하기 때문에 대형 쇼핑몰 등에 입점하고 영업시간도 유연화하여 손님 접점과 편의성 확대에 노력
- SMBC는 상담형 특화점포를 30~4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산상담 외에도 점포 내 카페나 유료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 내부 공간을 적극 활용할 예정
- 리소나 은행의 경우 신형 특화 점포가 취미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비금융 테마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 개최 등 이벤트 거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리소나 은행의 상담형 특화 점포는 나라현 내에서 처음 출점되며 시범적으로 2025년까지 10개점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

■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님들에게 대면채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

- 국내에서도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점포들이 있으나 대도시 위주로 집중되어 있고 대상 범위도 제한적
  - 국내 은행의 경우 은퇴를 앞둔 시니어층 등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점포도 있지만 대중 전반의 니즈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미흡
- 최근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자산관리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자산관리 상담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 파악이 중요
- 또한 국내 금융사들도 타 채널이 대체할 수 없는 대면채널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비용과 서비스 수준 모두를 고려한 효율성 있는 형태의 점포를 모색할 필요 

■ 미즈호의 기존 점포와 아틀리에 운영방식 비교

|        | 기존 점포                     | 미즈호 아틀리에                                  |
|--------|---------------------------|-------------------------------------------|
| 위치     | 역 주변 등 교통접근성이 좋은 곳        | 역의 상업시설, 대형 쇼핑몰 등에 입점                     |
| 영업시간   | 월~금요일<br>오전9시 ~ 오후3시      | 주말이나 퇴근시간에도 유연하게 운영                       |
| 인원     | 10명 내외                    | 지점 내 7~10명<br>자산컨설팅 담당 2~3명               |
| 제공 서비스 | 은행원이 계좌개설 및 이체 등 모든 업무 수행 | 전문 상담원이 자산운용 상담에 응대<br>단순한 업무는 무인 단말기로 수행 |

자료 : Nikkei

■ Share Lounge가 있는 SMBC 점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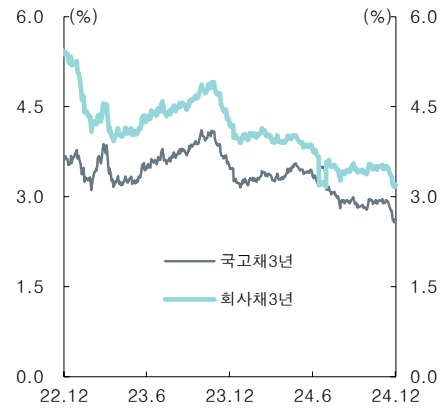
자료 : Newswitch.jp

[3] “リそな、週末に対面相談できる新店 商業施設などに10店”, Kanzai, 2024.9.9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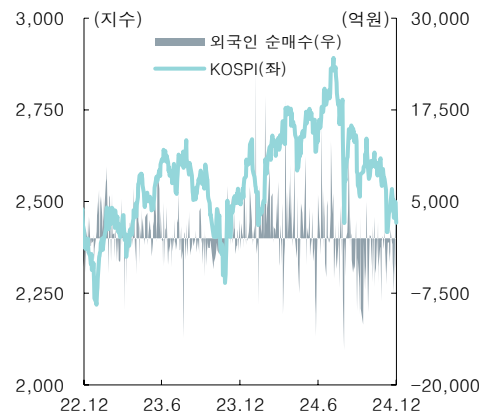
### 금리

| 단위: %   | 콜<br>(1일) | CD<br>(91일) | 산금채<br>(1년) | 회사채<br>(AA-, 3년) | 국고채<br>(3년) | 국고채<br>(5년) |
|---------|-----------|-------------|-------------|------------------|-------------|-------------|
| '22년말   | 3.38      | 3.98        | 4.17        | 5.23             | 3.72        | 3.74        |
| '23년말   | 3.91      | 3.83        | 3.69        | 3.90             | 3.15        | 3.16        |
| 11월말    | 3.07      | 3.29        | 3.05        | 3.19             | 2.61        | 2.65        |
| 11월 29일 | 3.07      | 3.29        | 3.05        | 3.19             | 2.61        | 2.65        |
| 12월 2일  | 3.03      | 3.28        | 2.98        | 3.16             | 2.57        | 2.60        |
| 12월 3일  | 3.02      | 3.28        | 2.97        | 3.17             | 2.59        | 2.61        |
| 12월 4일  | 3.04      | 3.28        | 2.99        | 3.21             | 2.63        | 2.64        |
| 12월 5일  | 3.01      | 3.28        | 2.97        | 3.19             | 2.60        | 2.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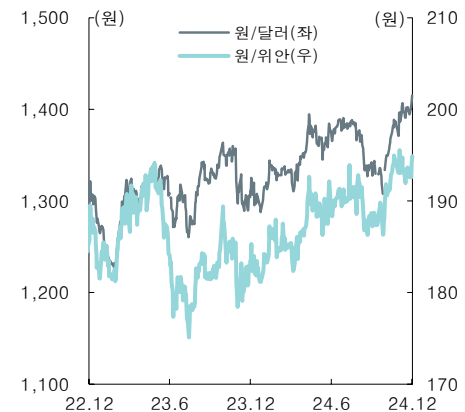
### 주가

|         | KOSPI<br>(지수) | 거래대금<br>(억원) | 거래량<br>(백만주) | 외인순매수<br>(억원) |
|---------|---------------|--------------|--------------|---------------|
| '22년말   | 2,236.4       | 60,365       | 361          | -1,437        |
| '23년말   | 2,655.3       | 94,189       | 460          | 7,017         |
| 11월말    | 2,455.9       | 91,065       | 384          | -7,494        |
| 11월 29일 | 2,455.9       | 91,065       | 384          | -7,494        |
| 12월 2일  | 2,454.5       | 75,917       | 328          | -1,309        |
| 12월 3일  | 2,500.1       | 91,452       | 324          | 5,655         |
| 12월 4일  | 2,464.0       | 132,969      | 670          | -4,071        |
| 12월 5일  | 2,441.9       | 97,207       | 519          | -3,174        |



### 환율

| 단위: 원   | 원/달러    | 원/100엔 | 원/위안  | 원/유로    |
|---------|---------|--------|-------|---------|
| '22년말   | 1,264.5 | 950.3  | 181.5 | 1,349.0 |
| '23년말   | 1,288.0 | 911.0  | 181.2 | 1,425.1 |
| 11월말    | 1,394.7 | 931.9  | 192.6 | 1,475.9 |
| 11월 29일 | 1,394.7 | 931.9  | 192.6 | 1,475.9 |
| 12월 2일  | 1,401.3 | 937.1  | 192.7 | 1,471.4 |
| 12월 3일  | 1,402.9 | 938.6  | 192.6 | 1,474.1 |
| 12월 4일  | 1,410.1 | 936.7  | 194.1 | 1,482.4 |
| 12월 5일  | 1,415.1 | 942.9  | 194.9 | 1,49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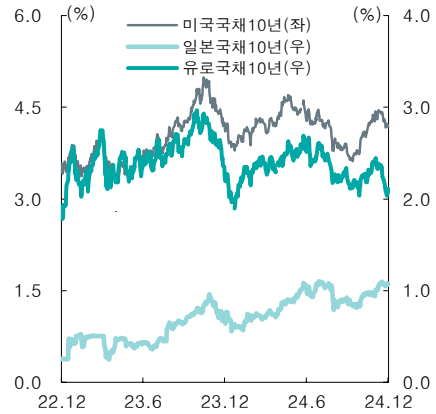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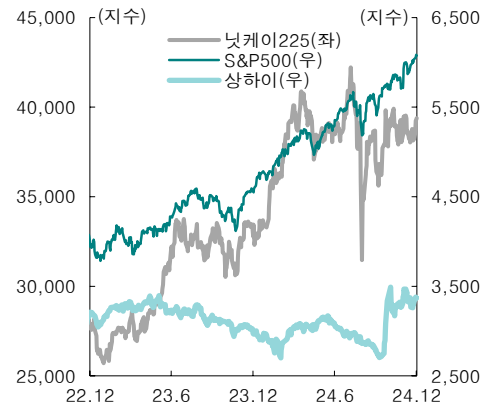
### :: 금리

| 단위: %   | 미국   |        |      |       | 일본    | 유로    |
|---------|------|--------|------|-------|-------|-------|
|         | 실효FR | SOFR3월 | 국채2년 | 국채10년 | 국채10년 | 국채10년 |
| '22년말   | 4.33 | 4.59   | 4.43 | 3.87  | 0.42  | 2.57  |
| '23년말   | 5.33 | 5.33   | 4.25 | 3.88  | 0.61  | 2.02  |
| 11월말    | 4.58 | 4.47   | 4.15 | 4.17  | 1.05  | 2.09  |
| 11월 29일 | 4.58 | 4.47   | 4.15 | 4.17  | 1.05  | 2.09  |
| 12월 2일  | 4.58 | 4.46   | 4.18 | 4.19  | 1.08  | 2.03  |
| 12월 3일  | 4.58 | 4.47   | 4.18 | 4.22  | 1.08  | 2.05  |
| 12월 4일  | 4.58 | 4.44   | 4.13 | 4.18  | 1.07  | 2.06  |
| 12월 5일  | -    | 4.43   | 4.14 | 4.18  | 1.07  | 2.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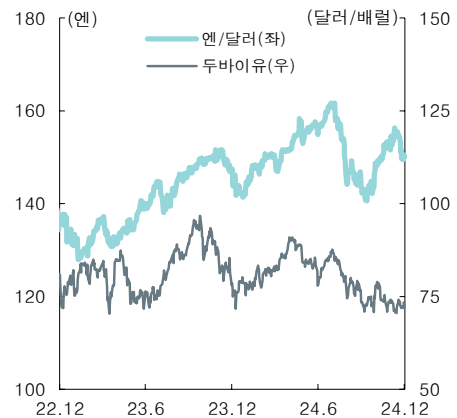
### :: 주가

| 단위: 지수  | S&P500  | 닛케이225   | 상하이종합   | Euro Stoxx |
|---------|---------|----------|---------|------------|
| '22년말   | 3,839.5 | 26,094.5 | 3,089.3 | 3,793.6    |
| '23년말   | 4,769.8 | 33,464.2 | 2,974.9 | 4,521.4    |
| 11월말    | 6,032.4 | 38,208.0 | 3,326.5 | 4,804.4    |
| 11월 29일 | 6,032.4 | 38,208.0 | 3,326.5 | 4,804.4    |
| 12월 2일  | 6,047.2 | 38,513.0 | 3,364.0 | 4,846.7    |
| 12월 3일  | 6,049.9 | 39,248.9 | 3,378.8 | 4,878.5    |
| 12월 4일  | 6,086.5 | 39,276.4 | 3,364.7 | 4,919.0    |
| 12월 5일  | 6,075.1 | 39,395.6 | 3,368.9 | 4,951.6    |



### :: 환율/상품

|         | 환율      |           |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             |
|---------|---------|-----------|-----------------|-------------|
|         | 엔/달러(엔) | 달러/유로(\$) | Dubai(\$/배럴)    | Gold(\$/온스) |
| '22년말   | 131.27  | 1.071     | 78.8            | 1,826.2     |
| '23년말   | 141.36  | 1.106     | 79.1            | 2,083.5     |
| 11월말    | 149.64  | 1.058     | 72.3            | 2,681.0     |
| 11월 29일 | 149.64  | 1.058     | 72.3            | 2,681.0     |
| 12월 2일  | 149.53  | 1.050     | 72.1            | 2,658.5     |
| 12월 3일  | 149.45  | 1.051     | 71.9            | 2,667.9     |
| 12월 4일  | 150.52  | 1.051     | 73.4            | 2,676.2     |
| 12월 5일  | 150.06  | 1.058     | 72.1            | 2,655.2     |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24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12월 6일 인쇄

2024년 12월 9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24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mailto:hanaif@hanafn.com)